

64 大邱府史 (대구부사)

仁川府史 (인천부사)

全州府史 (전주부사)

木浦府史 (목포부사)

群山府史 (군산부사)

釜山府史原稿 (부산부사원고)

이들 府史 (부사)는 지급으로 받으면

市史 (시사) 이고 ① 대구시사는 1943년경

발간한 것이 데 그 구성은 연혁편, 부정
 (府政) 편이 특수 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분량은 785 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대구시는 신라 때부터 알려진 곳으로
 이때 日本書紀(일본서기)에 기록된 것이
 1,700년 전이라 한다
 당시의 대구시장은 1935년 부터 조선총
 통부 특수관인 稻葉(이노바) 씨에게 자문을
 받은 등 자료수집에 착수 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시사 편찬에

여기는 당시의 京城帝大 (경성제대)의 末
 松保和 (스에마쓰) 교수와 藤田亮策 (후지다)
 교수로 주임으로 해서 자업자득 했다는 점
 이 ^당 특히 제 3권 ~~에~~ ~~는~~ 대구의 支石 (지
 석) ^에 ~~는~~ ~~고~~ ~~분~~. 과 대구의 지명 (地名) 에 관하는
 교차가 된다고 되어 있다

신川 府史 (인천시사) 는 1932년 12월이 출간
 했는데 그 분량은 1553 쪽에 달한다
 인천은 우리 나라 개화와 밀접한 관계
 가 있기 때문에 기록도 많고 자료도

않다.

金井府史(전주 시사)는 ~~1,400 여년전~~ ~~조선조~~ 후백제

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朝鮮朝(조선조)

보통상의 경리로서 널리 세상에 알려져

있다. 韓莊내용이 韓莊誌(향토지)로서는

흔적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가축과 있다

특히 특이적인 것은 삼국시대에서 현재

까지 이 지역기 대한 災患(재해) 기록

을 수록하고 있는 점이다.

木浦府史(목포 시사)는 1930년에 발행

된 것인데 해방 후 이 때 출판사에서의 복사
 출판한 것인데 총 분량은 1082 쪽에 달하
 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말머기 餘談一束
 (여담안속) 이라 하여 목포 지방에 떠돌던
 크고 작은 이야기 등을 수록 하고 있다
 이 책을 태백산 개항장 구한말에 당시 무안
 조수가 일본인에게 산학도 록 100엔에
 팔았다가 도록 불려진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群山府史(군산시사) 1935년에 출간했던

것인데 1986년 부산 소재 민족문화사에서
 복간한 것이다 분량은 318쪽이다 (100쪽 한정판)
 崑山府史原稿 (부산부사 원고는) 일제시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출간을 하
 지 못했는데 그 분량은 원고만 6권 (3600여쪽) 이므로
 상기한 이등부사는 해방 후 각 도시의
 시사편찬의 기준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
 지가 없지 한가지 아쉬운 것은 平壤府史 (평
 양부사)와 咸興府史 (함흥부사) 등을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